

일일 국제 기후·에너지 동향

광물자원

◆ 알제리, 새로운 광업 법안 발표(주알제리대사관)

- 3.4(화) 아르캅(Mohamed Arkab) 알제리 에너지·광물·신재생에너지부 장관은 알제리 의회 경제·산업·상업·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광업 활동 관련 새로운 법안을 발표함.
 - 동 법안은 광업 부문 투자 재활성화와 경제 다변화를 목표로 한 법적 개혁의 일환이며, 특히 알제리의 광물자원에 대한 지질학적 데이터 부족과 새로운 광산 발견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
 - 동 법안은 광업 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해 광업 탐사와 개발을 촉진하며, 간소화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투자자들이 광물 탐사 및 개발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광업 자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여 재정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광산 탐사 및 개발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한을 설정하며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단일 창구 서비스 제공
 -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탐사, 개발 및 채굴 활동 관련 법적 제약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알제리 법인 설립 의무는 탐사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용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광산 발견 시에는 직접 채굴 권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 광업 탐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규제와 표준 수립을 담당할 기관도 두 곳 설립 예정

◆ 볼리비아, 호주와 리튬 산업화 협력 모색(주볼리비아대사관)

- 볼리비아 리튬 공사(YLB)의 오마르 알라르콘(Omar Alarcón) 회장과 주페루·볼리비아 마린글랜드(Maree Ringland) 호주 대사는 3.6(목) 리튬 산업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회담을 가졌으며, 동 계기에 볼리비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 매장량(2,300만 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포토시(Potosí)와 오루로(Oruro) 소금사막에 집중되어 있다고 언급함.
 - YLB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전 세계 1위 탄산리튬 생산국이며, 이번 회담을 통해 볼리비아의 독자적인 산업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지식을 공유
- 현재 볼리비아 정부는 리튬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며, 중국 홍콩 CBC 컨소시엄과 러시아 Uranium One Group과의 협력을 통해 리튬 직접 추출 기술(EDL, Extracción Directa de Litio) 도입을 추진 중임.
 -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볼리비아를 글로벌 리튬 시장에서 전략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원이나, 이러한 협약들은 국가 자원을 외국 기업에 넘기는 '매국적 정책'이라는 국내 여론의 강한 반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정부는 리튬의 최대 활용을 위해 추가 협정을 추진 중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튬 생산 및 국제 자원협력 경험이 풍부한 호주는 러시아 및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술적 협력 파트너로 부상중. 끝.